

(가)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툽니들이 갈수록 뽀족하게 빛이 나니
㉔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여
앞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나)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 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①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濃灰色)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이 옥중한 기류(氣流) 가운데 자조(自嘲)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 두자.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胚胎)*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生長)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生存)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世紀)의 초점(焦點)인 듯 초췌(憔悴)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듯이 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압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 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內幕)은 그렇지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自由)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浮遊)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輕快)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 점의 대칭위치(對稱位置)에 또 하나 다른 밝음(明)의 초점(焦點)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덩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마는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自身)이 둔질(鈍質)*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準備)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중략)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愛情)이 관통(貫通)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交分)의 한 표본(標本)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펍 불행한 존재(存在)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惻隱)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굳음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망정 자양분(滋養分)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쏘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 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출출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課題)에 봉착(逢着)하지 않고 인위적(人爲的)으로든 우연(偶然)으로써든 탄생(誕生)시켜 준 자리를 지켜 무궁무진(無窮無盡)한 영양소(營養素)를 흡취(吸取)하고 영롱(鈴瓏)한 햇

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營爲)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나.

이 밤도 과제(課題)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량을 자랑치 못함에 빠져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先輩)의 웅변(雄辯)에 왈(曰) 선배(先輩)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伶俐)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아차!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가 ‘무슨 무슨 주의 옛장수들’에 의해 다듬어지는 것은 화자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강압을 드러낸다,
- ② ‘허공’은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다음 행동을 상실한 공간을 드러낸다.
- ③ ‘귀 있는 바람’이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가하는 고통을 드러낸다.
- ④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것은 ‘시퍼런 생기’를 띄는 ‘낮’과 ‘뽀족하게 빛’을 내는 ‘툽니’에 맞서고자 하는 ‘북가시나무’의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 ⑤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는 상황에도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쓸 수도 있으리라’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의 대표자인 이육사는 「광야」에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의 신성성에 경외를 표하며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강하게 염원한다. 또한 문명의 시작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구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의 여정을 보여 준다.

- ① ‘까마득한 날’은 ‘광야’가 나타난 시기를 의미하겠군.
- ② ‘모든 산맥들이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는 광야의 신성성에 경외를 표하는 표현이겠군.
- ③ ‘끊임없는 광음’과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는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겠군.
- ④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 ‘지금’은 민족이 해방된 시기를 의미하겠군.
- 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의미하겠군.

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북가시나무의 살벌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② ㉡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은 문제에 맞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는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자 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④ ㉡는 ㉠과 달리, 주체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과 ㉡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동주의 작품 세계는 철저한 자아 성찰이라는 특이성을 갖는다.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위기 속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은 그의 작품들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별똥 떨어진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 ① ‘밝음의 초점’을 ‘휘잡지 못’하는 이유를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서 자신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② 나무에 대한 평가가 ‘불행한 존재’에서 ‘행복한 생물은 다시없을 듯 하다’로 바뀌는 것을 보니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군.
- ③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는 나무의 모습에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은 나무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는 것을 보니,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 ⑤ ‘별똥’이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해설

1. 답

2. 답 2번

3. 답 4번

4. 답 5번

5. 답 3번